

“저비용 결혼문화 불교계 적극 동참”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희정 장관에 화답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의 예방을 받고 저비용 결혼문화 조성을 주제로 화답을 나눴다. 김희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 관혼상제의 비용구조가 개선됐지만, 혼례문화 만큼은 아직도 고비용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결혼비용을 낮출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어 “결혼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찰을 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명망 있는 스님들이 주례로 나서서 재능기부를 해준다면 저비용 결혼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에서 행복을 찾는 결혼식이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종단은 이용자의 종교와 상관없이 사찰은 물론 산하 복지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비용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yc@ibulgyo.com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협의회 2월 공식발족

불교계 국제구호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들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9개 단체들은 지난 11월27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축을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을 비롯해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엔지오비유디, 백전문화재단, 아름다운 동행,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연우 등 9개 단체 실무자 15명은 불교계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수행 단체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2015년 2월초에 협의회 공식 발족을 목표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단체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부처님 법, 삶의 나침반 되는 날까지 정진”

‘붓다의 삶’ 원력 실천...제26회 포교대상 시상 지홍스님 대상 상금, 조한근 국장 치료비 전달

제2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 포교대상(종정상) 수상자인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을 비롯해 공로상 및 원력상 수상자들이 참석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지홍스님은 도심포교의 선구자인 광덕스님의 뒤를 이어 불광법회를 이끌며 불광사를 중흥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월간 <불광>을 40년간 꾸준히 발행하며 불광출판사를 교계 최대 출판사로 성장시킨 점도 눈에 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받은 지홍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저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포교에 매진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대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스승인 광덕스님이 일군 토대 위에 저는 법당 불사를 조금 한 것뿐”이라고 몸을 낮췄다. 아울러 “이 상을 주신 것으로 더 열심히 전법불사에 나서라는 의미로 알겠다”며 “불광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의 불광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지난해 11월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투병 중인 조한근 파라미타정소년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전액 보시하겠다고 밝혀 귀감이 됐다. 이와 함께 공로상(총무원장상)은 대원스님(천안 각원사 주지)과 심산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4일 포교대상 수상자 지홍스님(오른쪽)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홍스님은 “은사 광덕스님 일군 토대 위에 법당불사만 조금 한 것뿐”이라며 전법불사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정수 서울 봉은사 신도회장,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 단장이 수상했다. 또한 원력상(포교원장상)은 환성스님(세종 영평사 주지), 무구스님(남양주 백전사 주지), 일운스님(울진 불영사 주지), 신호승 인천파라미타정소

년연합회 사무처장,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진정순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연맹장,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에 돌아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상식 치사에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붓다처럼 살겠다고 하는 원력이 삶을 굳건히 지탱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부처님 법이 모든 이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구룡사, 군장병 핫팩비용 1000만원 기탁

서울 구룡사(주지 각성스님·사진)가 지난 4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군종특별교구 지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구룡사가 전달한 기금은 동행을 통해 군종교구에 지정 기탁돼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을 위한 핫팩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룡사는 지난해에도 병사들을 위해 핫팩 22만 개를 지원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룡사 주지 각성스님은 “추위 속에서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매일 한 개씩의 핫팩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총림안정 지역포교 복지향상 위해 노력”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원일스님 임명 아프리카 학교 건립비 동행에 1000만원 전달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 주지에 원일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 주지 원일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고불총림 주지로써 방향 스님을 잘 모시면서 산중의 대중 스님들을 잘 아우르며 총림을 잘 이끌어가기 바란다”면서 “특히 총림안정과 더불어 지역 포교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양사 주지 원일스님은 “전임 주지 진우스님이 고불총림을 상당부분 안정시켜 놓은 만큼 그 뜻을 잘 이어 총림을 안정적으로 발전시

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일스님은 임명장을 받은 뒤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사용돼달라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백양사 주지 원일스님은 “전임 주지 진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4년 법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학교법인 백양학원(세지중학교) 이사장과 백양실버타운 대표 소임을 맡고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동국대 총장 후보...보광스님 김희옥 조의연

동국대 차기 총장후보 가운데 불교학부 교수 보광스님, 김희옥 현 총장, 조의연 영어영문학부 교수 3명이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스님)는 지난 4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희옥 총장이 11표, 보광스님이 7표, 조의연·연기영 교수가 각각 3표, 한진수 교수가 1표를 얻었다. 동점표를 얻은 조의

연, 연기영 교수는 재투표를 실시해 조의연 교수가 결정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2주 뒤 후보자가 3명 가운데 1명을 제18대 동국대 총장으로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총추위는 교무위원회의실에서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됐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Box containing portraits and names of candidates for the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election, including names like Beomshin, Wonil, Heil, Do-hong, Seonbo, Seon-oh, Cheon-an, Cheon-il, Shim-dam, Seon-gyeon, Ji-hong, Song-heon, Sang-un, Seok-u, and Ji-il.

제30회 不二賞 公 告

내년도 불이상 후보자 추천접수를 시작합니다. 제30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정비한 추천 요강을 숙지하시어,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 갈 불교계의 숨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상부문

- 연구 분야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장차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인재
• 실천 분야 수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각 수상자는 상장과 2천 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 자격

- 연구 분야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시간 강사, 연구 교수, 강의 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최근 수년 동안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자
• 실천 분야 수행과 포교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혹은 불교 단체

구비서류 분야별 추천서

- ※ 후보자는 분야별 한 분 추천가능하며, 추천할 후보자가 없는 분야는 추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 업적 증빙 자료는 추천받은 후보자분께 불이상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 연락을 드립니다.

추천서 접수

- 접수기한 2015년 1월 30일 (금)
• 접수방법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불이상 심사위원회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번지
전 화 : 02-2014-6616/6617
이메일 : burisince1986@gmail.com (이메일로 추천서 양식 요청 가능)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발 표 _ 2015. 6월 언론 발표 • 시 상 _ 2015. 7월

기타

기타 문의는 불이상 심사위원회(접수처)로 연락 바랍니다.